

해외에 소장된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 연구 I

-미국 뉴욕지역 박물관을 중심으로-

부산여대 의류학과
강사 **윤 은 재**
세종대 가정학과
교수 **손 경 자**

目	次
I. 서론	1. 우리의 출토복식
II. 이론적 배경	2. 미국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
1. 문화재 정의 및 특징	V. 양국 복식 관리현황의 문제점
2. 문화재의 해외 전시 및 유출과정	VI. 결론
3. 박물관 및 관련 국제법규	참고문헌
III. 해외 소장 문화재의 실태조사 및 현황	ABSTRACT
IV. 국내의 복식의 현황	

I. 서론

복식은 인류문화의 자취이자 인류정신의 지표로 문화재중에 한 분야인 민속자료에 속하며 주로 문헌과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되나 유기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보관과 관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80년대를 전후로, 과거 우리 선조가 남긴 우수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전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정부의 문화재 보호 및 육성정책하에 학계를 중심으로 문화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반인에게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화재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국제 협력주의에 입각하여 어떤 나라에서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중요시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세의 수난과 암흑기를 겪으면서 문화재가 해외로 많이 유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합리적인 보관 및 관리법의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우리 문화재에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문화재 관련기관 뿐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 문화, 특히 복식에 대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우리 복식 문화재의 현황과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홍보, 전시, 보급함은 물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물보존관리법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문화재의 정의와 특징, 해외 전시와 유출과정 및 박물관의 정의와 관련 국제법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각국 박물관의 소장량 및 관리현황의 파악은 물론 우리 복식 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양국의 관리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으며, 아울러 더 많은 우리 복식 문화재의 연구

가 이루어져 세계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전시, 보급하여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하므로 선행의 연구와 문헌 및 현지 박물관과의 서신교류등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우리 문화재의 해외 소장량과 소장 박물관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우선 미국 특히 뉴욕 및 동부지역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앞으로 본 연구를 선행으로 하여 더 많은 우리 복식의 보존관리 법과 현황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재 정의 및 특징

문화란 현실적으로 인간이 보다 나은 가치를 지향하면서 만들어 내는 학문, 윤리, 예술, 법 등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의 산물이며,¹⁾ 문화재는 인간이 살던 지역의 자연환경, 그들이 가진 풍습, 종교, 의식주, 생활감정, 산업기술 및 타지역과의 문화 교류 등이 총합하여 나타나는 독창적인 문화의 표현체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일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규명하고 조상이 남긴 흔적을 소중히 보존하여 그 가치를 빛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자료가 되는 것이다.²⁾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재이며, 그 다음이 지배계층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이장유물이다. 그 외에 외적의 침략에 맞서 항전하던 사적지등이 있다. 우리나라 마지막 왕조였던 조선시대는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념의 승화가 강한 종교적·정신적 문화라기 보다는 생활의 기조인 윤

리, 철학에 그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불행히도 문화재가 많이 남지 못하였다.³⁾

일찍부터 우리 정부나 왕실에서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였으나, 구체적인 법규는 없었으며 근대적 법규로 나타난 것은 우리 문화의 암흑기인 일제시대였다. 특히 1911년부터 일제가 공식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관심을 보인 이후, 1916년 조선총독부가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제정·공포하여 방임되었던 일본인 도굴자와 일부 몰지각한 조선인의 문화재 약탈 및 방출행위를 위협하였으나 실제로는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보호법규는 1933년 12월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⁵⁾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관제였는데, 이를 통해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로 영구히 보존하며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한 제한하였다.⁶⁾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전반에 걸친 혼란이 계속되던 중 마침내 1949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의 문화재 손실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고적애호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6.25동란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또 한번 문화재 수난의 역사가 재현되었다. 휴전 이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드디어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일차 결실을 보았고 그후 1993년 3월 6일까지 12차례의 부분 및 전문 개정을 계속해 오고 있다.⁷⁾ 특히 1970년 8월 10일 개정에서는 문화재의 해외방출, 착취, 은닉, 훼손 기타 범법자에 대한 부칙이

1) 최종고,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비교법 및 국제법적 고찰", 문화재 23호, 1990, p.1

2) 정태진, "문화재보존관리의 정책 방향", 문화재 22호, 1989, p.2

3) 정재훈, "문화재보존의 기본방향", 문화재 17, 1984, p.1~4

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재 및 전통문화 관리기능 강화방안 연구, 1992, p.52~66

5) 정재훈, 전게서, p.2

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전게서, p.62

7)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의 보호와 대책에 대한 고찰", 문화재 26, 1993, p.304~306

강화되었다.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며, 복식은 민속자료의 범주에 속한다. 민속자료란 우리민족의 생활양식이나 풍습인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推移를 이해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들 중 중요한 것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1988년도 지정문화재 현황, 정태진, 문화재 보존관리의 정책방향, 문화재 22호, 1989

種別	市·道別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全國	合計
國家	國寶	105	3				28	7	8	20	4	15	44	8			242
	寶物	252	13	14		7	85	46	31	66	69	81	218	72	1		955
	史蹟	54	4	3	2	1	44	3	9	28	21	19	83	50	1		322
	史蹟 및 名勝								1	1			3	1			6
	名勝							1				4	1	1			7
指定	天然記念物	12	8	1	1		16	23	20	11	18	38	42	33	18	29	270
	重要無形文化財	34	4		1	1	4	2		4	1	10	4	9	3	11	88
	(인간문화재)	67	9		3	1	10	3		6	1	13	4	25	3	34	179
	重要民俗資料	45		1		2	8	6	22	16	12	30	58	12	7		219
	(*小計*)	502	32	19	4	11	185	88	91	146	125	197	453	186	30	40	2,109
市道	市道有形文化財	67	22	23	9	12	113	104	129	122	119	138	224	247	9		1,338
	市道無形文化財		6	3	2	5	2	4		6	7	13	13	8	8		77
指定	市道記念物	7	30	7	1	13	103	61	78	68	71	96	70	85	36		726
	市道民俗資料	27		2			7	1	6	12	27	24	78	10	4		198
	(*小計*)	101	58	35	12	30	225	170	213	208	224	271	385	350	57		2,339
	文化財資料		1	16	5	8	74	102	8	299	95	126	208	168	3		1,113
	傳統構造物	1					2	1		2	1		15				22
	(*合計*)	604	91	70	21	49	486	361	312	655	445	594	1,061	704	90	40	5,583

2. 문화재의 해외 전시 및 유출과정

가. 해외전시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서양과의 문호개방 전후로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전시는 189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189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국제박람회에 처음으로 공식 참가한 것이다. 박람회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는 6~7채의 기와집을 지어 나전칠기 가구와 보료, 방석 등의 기물을 비치하고, 대포·대총 등 총포류 및 다양한 복식류를 전시하였다.⁹⁾ 1900년에는 고종황제의 뜻에 따라 파리국제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이를 당시 유력지였던 르 프티 주르날에 실린 화보를 통해 보면 태극기와 두루마기 차림의 사람들, 지게를 진 짐꾼, 일산을 든 채 장죽을 문 노인, 商

8) 최종고, 전게서, p.16~18

9) 오명, "시카고 엑스포 참가전시품 특별전",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1993. 8

談하는 광경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한국관은 프랑스의 건축가인 E. 페레에 의해 궁중의 접견실을 본따 기와를 얹은 사각집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 전시된 물건은 한국 정부의 소유물과 플랑드르폴랑시의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소장품 등이었다. 당시 최고의 한국학자였던 모리스 쿠랑은 각종 견직물, 낫그릇, 도자기, 궁중의상을 입은 마네킹, 나막신, 갓, 병풍,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한국관은 ‘검손의 미’를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문화를 최초로 소개한 것이라고 했다.¹⁰⁾



<그림 1> 1900년 12월 16일자 르 프티 주르날지에 게재되었던 파리국제박람회의 한국관 화보, 한국일보, 1993.10.26

이외에도 문화의 암흑기였던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특히 1993년에는 우리나라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세기초부터 오늘날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우수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전시가

세계 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광복후 1957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 8개도시에서의 ‘국보 문화재 전시’와 1961년부터 1962년까지의 유럽 5개국 순환전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가난과 무지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씻고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¹¹⁾ 1975년의 ‘한국예술 5000년전’은 일본과 미국을 순회전시 하였는데 이때 미국인들이 우리 예술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고 하며, 특히 '86 아시아 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93년 9월부터 미국의 아시아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 축제를 겸한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우리 문화의 소개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뉴욕에서 시작해 워싱턴, 로스엔젤스, 시카고 등 미국내 몇몇 지역을 순회하였다.¹²⁾

대부분의 해외 전시는 순수미술품 전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세종대학교의 전신인 수도여자사범대학은 동 대학박물관 소장품 및 작품을 이용하여 일찌기 1963년 일본 동경에서 이조시대 궁중의상 발표회를 가졌으며, 1972과 1973년에는 미국에서, 1974, 1977, 1979년에는 홍콩, 자유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순회 전시를 실시하였다. 한편 1992년 미국 뉴욕에서는 서울 올림픽때 호평을 받았던 ‘한국의 미’ 전시품 대부분을 다시 전시했는데, 여기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의상, 장신구, 보자기등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보자기는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몬드리안(Mondrian)이나 클레(Klee) 작품의 모태라고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문화전시는 그 횡수와 내용면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적은 편으로 더 많은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보급해야만 할 것이다.

10) 김영환, “1900년 파리-1902년 하노이박람회 ‘한국관 사진’ 발췌”, 한국일보, 1993.10.26, 11

11)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심구당, p.165~172

12) Korea Herald, “The Olympics Led to a Changed Image of Korea”, 1993. 9.25

나. 문화재의 해외 유출과정

문화재의 해외 유출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일제시대부터 문화재의 발굴, 해외유출 분계등이 나타났다.

1876년 개항 이후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 직후 일본은 총독부를 설치했는데, 초대 총독인 伊藤博文이 일본 天皇과 귀족들에게 주는 선물로 우리의 문화재를 도굴하여 일본에 보냈다. 1910년 한일합방후에는 학술적 발굴이란 미명 아래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문화재 도굴이 자행되었으며, 일제는 1921년 조선총독부안에 '고적조사반'을 만들어 서울·개성·평양·부여·공주·경주 등 수많은 고적과 산성을 파괴하고, 엄청난 양의 출토품을 착취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이런 약탈행위는 해방이 될때까지 계속되었다.¹³⁾

한편 유럽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¹⁴⁾에서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우리와의 문호개방 전후부터 약탈 혹은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게 되었다. 특히 1886년 병인양요를 통해 우리의 고서들이 프랑스로 유출되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몇몇 박물관에는 구한말 당시 외교인들이 현지에서 구입한 것을 기증한 것도 있다.

정부에서는 해방이후부터 이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에 의해 반출되었거나 합법을 가장한 도굴단이나 골동품상에 의해서 반출되었거나 팔려나간 문화재와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이 착취해간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성대학 원서관장인 李仁榮씨와 국립박물관장인 金載元씨등이 일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여 정식으로 반환을 청구했다. 1949년 7월에는 우리 외무부가 일본의

帝室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직접 요구했으나 일부만이 1949년에 반환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¹⁵⁾

3. 박물관 및 관련 국제법규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로 각국이 상호교류와 공동협약을 준수하며 공존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와 그를 수집·보관·전시하는 박물관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20~3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2년 국제박물관회의 보고서에서는 세계에 약 26,700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이들중 2/3는 선진국에 있다고 하였다.¹⁶⁾

박물관이란 역사·예술·민속·산업·과학 등의 고고학 자료 및 미술품과 기타 인문·자연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며 그 자료들을 조사 연구함과 동시에 교육적 목적하에 일반대중의 전람에 이바지하는 기관이다. 또한 자연 및 인류 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일반인의 교육과 오락을 위한 전시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유물을 활용하는 것인데 역사, 예술, 민속 등 다른 모든 학문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¹⁷⁾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국보를 보관하는 보관창고가 있었으며,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고려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三國遺事, 興法第三 柏栗寺條를 보면 天尊庫가 훼손되어 庫內에 있는 琴笛二隻가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天尊庫는 아마도 수장고의 일종이라고 짐작된다.¹⁸⁾ 19세기

13)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의 보호와 대책에 대한 고찰", 전게서, p.304~306

14)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1991

15) 한국문화예술통진원 문화발전연구소, 전게서, p.63~64

16) 김종담, "박물관학", 문화재 24호, 1991. p.305

17) 김종담, 상게서, p.310~311

18)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3. p.77~78

까지 박물관 자료는 왕족이나 귀족 혹은 권력자에 의해 수집·관리되었다. 근대적 박물관의 효시는 1909년 11월에 개관한 李王家박물관으로 伊藤博文이 강제료 폐위된 고종을 위로하고자 이완용에게 사주를 주어 만든 것이다.¹⁹⁾ 1915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고적조사에 의한 수집품과 매장유물의 국고귀속품, 구입품, 그리고 각 사찰의 기탁품등을 주축으로 역사·미술·공예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였고, 1925년 과학박물관, 1926년 경주박물관, 1939년에는 부여박물관이 개관하였으며, 경주와 부여 박물관은 1939년에 총독부박물관의 분관이 되었다.²⁰⁾ 광복후 정부는 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1945년 12월에 국립박물관을 발족했으며, 1960년대는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시가 대내외적으로 있었고, 1968년 7월부터는 문교부에 속해 있던 박물관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많은 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의 경제성장 이후 우리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현재 약 1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

문화재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는 15세기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부 교전국들이 戰後처리의 내용으로 문화재 반환에 합의한 예가 있었다. 이와같은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일된 관리 기구의 부재와 축적미비로 단편적인 효과에 그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주력하였으며, 유네스코총회의 공고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유통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있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54

년에 제정한 ‘무력분쟁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에서 문화재의 정의를 확대시켰으며, 1962년 제12차 총회에서는 ‘풍경과 지적미와 특질의 보존에 관한 권고’를 통해 문화재의 의미를 더 한층 넓혔다.²¹⁾

또한 박물관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그 기능을 밝히기 위하여 1946년에 창설된 유네스코의 비정부조직의 하나인 국제박물관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ICOM)는 박물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아울러 박물관의 국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들은 “문화적 또는 학술적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연구·교육 및 趣樂을 위하여 보관하고 전시하는 상설기관은 모두 박물관으로 간주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ICOM에서도 문화재를 출처국에로의 반환에 대한 규범성이 강화되고 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박물관들은 유물의 표본 수집시 1970년 유네스코협약(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²²⁾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8월 10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해외방출, 착취, 은닉, 훼손 기타 범법자에 대한 부칙이 강화되었으며, 1983년 5월에는 유네스코의 ‘문화재 불법 반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²³⁾

III. 해외소장 우리 문화재의 실태조사 및 현황

문화재 관련기관은 일찍부터 현지공관을 통해 한국 문화재의 소장량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하려고 했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1980년대부터는 정부와

1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전계서, p.59~61

2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상계서, p.59~60

21) 동아출판사, 동아 원색대백과사전 12권, p.421~429

22) “1970년 유네스코협약은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결의이다.” 김종담, “박물관의 모집품 관리”, 문화재 25, 1992, p.297~314

23) 최종고, 전계서, p.16~18

학계 및 여러 법인 등에서도 해외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사업을 통해 미국의 헨더슨이 소장한 도자기 143점, 일본의 安宅과 小倉 소장품 1180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어 1986년 3월 제2차 조사에서도 일본의 1310점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서독, 기타 국가에 1734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밝혀냈다.²⁴⁾

이종철씨는 1977년과 1979년의 현지조사에서 우리 문화재가 스칸디나비아 아세아 연구소, 덴마크

국립미술관 민속학부(3000), 덴마크 후레데릭 스보그 왕실 국립박물관의 은행박물관, 스웨덴의 동아시아박물관, 핀란드 등에 소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유럽에 독립된 한국전시실로는 코펜하겐이 최초이고 네덜란드 라이든 민속박물관, 독일의 쾰른 동양박물관 등이 있으며 나머지 박물관에는 중국, 일본 문화 소개의 한 방편으로 전시실이 상설되어 있다고 했다.²⁵⁾

한국국제문화협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도 해외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실

<표 2> 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박 물 관	총소장량/복식	재고 소장품	복식 관련 품목	지 역
뉴욕박물관	100 / 20	1915 / 1920	두식, 복식	New, Jersey
데이튼 미술관	50			Ohio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 박물관	20			Rhode Island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300 / 35	1938	두식, 복식	New York
미네소타 및 미네소타 대학 박물관	5000 / 9			Minnesota
버밍햄박물관	90			Alabama
보스턴 미술관	200	late 19C		Massachusetts
브루클린 박물관	100 / 20	1934	두식, 복식	New York
비숍박물관	160 / 95	1971	두식, 복식(근대복식)	Hawaii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200			California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	5000 / 200	1883 / 1883	두식, 복식	Massachusetts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3000 / 300	late 19C	두식, 복식	Washington D.C.
스미소니언 프리어 박물관	300			Washington D.C.
F.I.T 의상 컬렉션	/ 10	1976	복식	New York
월터즈 박물관	150 / 6			Maryland
인디안apolis 박물관	58(?)			Indiana
텍스타일 박물관	/ 3	1965	복식	Washington D.C.
필드 자연사 박물관	20	1893	두식, 복식	Chicago
하버드대학교 포그 박물관	250 / 2			Massachusetts
호놀룰루 미술관	560 / 14			Hawaii
로버트 무어 컬렉션	167 / 6		두식, 복식	California

2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전계서, p.66

25) 이종철, "서구의 한국문화재 전시와 구미 민속박물관 소고", 문화재 13, 1980, p.181~191

〈표 3〉 유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나 라	박 물 관	소장량/복식	最古 소장연도	비 고
네델란드	라이덴 국립 민속 박물관	(50)/(?)	1853	독립전시실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20)		
덴마크	덴마크 국립박물관	3000/(30)	1874	독립전시실
	은행박물관			
독 일	만하임 라이스 박물관	21	1926	
	베를린 시립 민속 박물관	300/(20)		
	베네딕트 수도원	500		
	브레멘 해외 박물관	240/(다수)		
스웨덴	퀼른 동아시아 박물관	80	1874	독립전시실
	함브르크 미술 공예 박물관	20		
	함브르크 민속 박물관	2000/(100)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	60		
영 국	대영박물관	5000	1668	
	더햄 대학교 동양박물관	50		
	리드 시립 박물관	20/(20)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1400		
오스트리아	스코트랜드 국립박물관		1668	
	애쉬 물리안 박물관	30		
	영국도서관	200		
	캠부리지대학 인류 고고학 박물관	200		
프랑스	뤼트즈 윌리엄 박물관	255	1668	
	비엔나 민속 박물관	720		
	파리 국립 도서관	100(?)		
	세르누쉬 박물관	10		

시한 1986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미국 16개도시 18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약 2천여점에 달하는 우리 문화재를 발견하였다. (표 2)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행한 유럽에 소장된 문화재 조사를 통해 8개국 약 23개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Korean Times에 게재된 '일본에서 제시한 해

외소장 한국문화재 목록'을 보면, 해외 15개국 이상에 대략 55,000여개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에 31,223, 영국에 7,281, 미국에 5,863, 독일에 4,056, 러시아에 2,091, 중국에 1,434, 덴마크에 1,406, 오스트리아에 721, 체코슬로바키아에 320, 프랑스에 104, 폴란드에 100여점"이 있다. 그중 일본이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나, 프랑스에서 우리 문화재를 직접 다루는 기메

박물관 연구원인 안옥성씨에 의하면 기메박물관에만도 수천점의 우리 문화재가 잠자고 있다고²⁶⁾ 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에는 이보다 많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대부분 박물관에서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불과 수년전까지도 각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유물이 분류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 박물관내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의 실정을 살펴보면 몇몇 소장품들은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그외의 대부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소장품 보다 그 가치가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경제·사회·문화의 교류도 적음으로 인해, 문화 교류가 많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로 오류되는 등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IV. 국내외 복식의 현황

1. 우리의 출토복식

복식은 유기물질이라는 재질상의 취약점 때문에 항시 곤충이나 세균등에 의해 부패되거나 소실될 여지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빈번한 외부의 침입 또는 내란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양이 亡失, 燒失, 破損되어 왔다.²⁸⁾

1968년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전국 각 국·공립 및 대학 박물관과 시·군 교육청이 소장한 문화재는 약 97,000여점이며, 이중 단지 1.1%인 997여점이 직물류였다. 우리나라 섬유문화재는 대부분 견

직, 면직, 마직류로서 특히 견직물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나라 最古의 직물은 1971년 공주 무녕왕릉에서 발견된 A.D. 523년에 직조된 것이며 현존하는 유일한 신라시대의 직물은 불국사의 석가탑의 사리장속에서 나온 직물조각이다.²⁹⁾

또한 현존하는 복식문화재는 대부분 출토복식으로, 출토복식이란 묘지 이장시 내관내에서 시체와 함께 발견되는 복식류이며, 死者에게 입히기 위해 새로 만든 新衣와 광대한 관내부를 채우기 위한 散衣로 대별되며 조선시대 후기의 것이 대부분이다. 1960~80년대 정부의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선묘의 이장공사를 통해 미아라와 함께 많은 양의 출토복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어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된 후 각 박물관과 개인 또는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다.³⁰⁾

최초의 발굴은 1941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출토된 동례정씨 정경부인의 유물로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학계의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1981년 중요민속자료 제115호로 지정되었다.³¹⁾ 학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3년 10월 사도세자와 혜빈홍씨 소생인 청해군주(1754~1821)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200여점의 유물들을 통해서였는데, 유물들은 대부분 의류로서 군주의 소아복부터 노년복까지 끌고투 출토되었으며 이는 국립박물관과 몇몇 박물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1965년 전남에서 김덕령 장군과 그의 질부의 복식이 출토되어 1980년에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1968년 3월 경기도 광주의 안동 김씨의 묘에서 출토복식이 나왔는데 이는 이조전기인 1560년 경의 것이었다. 최초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은 1979년 마산 二休亭 소장 출토복식이고, 보물로 지정된 것은 영릉포구 김덕원(1634~1704)의 보

26) 동아일보, 1993. 9.22. 25

27) 한국국제문화협회, 미국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1989

28) 안희근, "지류 섬유질 유물의 과학적 보존", 고문화 22편, 1983. 5, p.89

29) 과학기술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I, p.37

30)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

31) 김동욱, 고복남,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75호

에 출토된 68점의 복식이다.³²⁾

출토복식을 다량 소장한 박물관으로는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온양 민속박물관등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몇몇 대학 부설 박물관에 소량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³³⁾

2. 미국박물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

미국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에서는 미국 20여개 박물관에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었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선전의 연구를³⁴⁾ 통해 이보다 더 많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이들 각 박물관들은 나름대로 특징있는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 유길준 의사의 기증품을 소장한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과 스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는 다량의 우리 복식이 있으며 그 가치도 높으나, 그의 박물관들의 소장품은 그리 가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스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소장품중 명확한 제작연대와 크기가 기재된 것은 124점뿐이었고 나머지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미네소타 박물관과 미네소타 대학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부분 모제씨의 개인 기증품이거나 대여품인데 거의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³⁵⁾

본인의 선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소장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엽의 것으로 골동품상이나 현지 답사시 구입한 물건 혹은 기증품들이었다.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에는 35여점의 우리나라 복식이 소장되어 있는데, 最古 소장품은 레위슨(Lewison)씨가 기증한 것이며 그

밖에 유희경, 이경자씨 등 각계 한국인들도 기증했다. 소장품은 대부분 19세기 후엽에서 20세기 초엽의 것이거나 소수의 복제품등도 있는데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며 큰 나무서랍안에 Acid-free 종이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브루클린 박물관에는 우리 복식 약 20여점이 장식미술과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이전의 연구원인 클린(Culin)이 1913년과 1926년에 한국 현지 여행을 통해 구입하였는데, 대부분 우리의 전통적 형태이며 복식들은 옷걸이에 걸린 채 보관되어 있다. 뉴욕 박물관에는 복식이 20여점 있는데, 대부분 19세기의 것으로 외국인이 현지에서 구입한 것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것이며 Acid-free 상자내에 Acid-free 종이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F.I.T. 의상 컬렉션에는 10여점의 복식이 있는데 이는 모두 20세기 후반기의 것으로 모두 기증받은 것이며 옷걸이에 걸려 보관되고 있다.

미국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복식을 본인의 현지 조사와 각 박물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하여 종류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귀족 및 관료복식

1) 금관조복

남자관료의 朝服으로 大祀慶祝日·元旦·冬至 및 詔勅을 공포할 때나 進出할 때 착용하던 것인데 背綳衣, 赤綳衣·纁裳·後緩등 검비하여 착용하며 羅 또는 縐로 만들고 청초의·적초의, 혼상에는 가장자리에 黑선을 두른다. 브루클린 박물관과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 등에 전통적 형태의 것이 소장되어 있으며 피바디 옛센스의 것은 적초의·혼상·후수를 검비해 보다 완벽한 세트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2는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된 적초의로 19세기의 것이며 길이 107cm, 화장 107cm

32)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목록

33) 박성실, 전계서, p.144

34) 윤은재, "A Survey of Korean Costume in Metropolitan Area Museum Collections and a Preliminary Study of Some Unexplored Aspects of Korean Costume", New York : F.I.T. Master thesis, 1994

35) 한국국제문화협회, 전계서



<그림 2> 금관조복, 브루클린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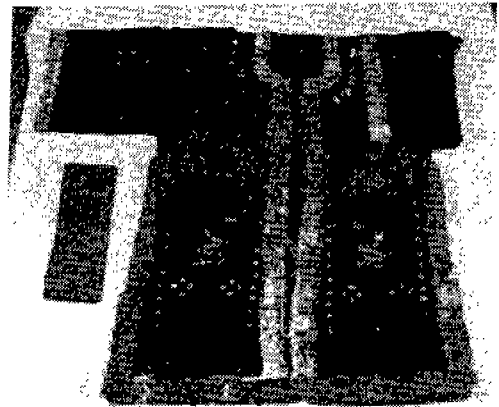


<그림 3> 동달이 뒷모습, 브루클린 박물관

이다.³⁶⁾ 붉은 사로 만들어졌으며 가장자리에 약 10cm의 검정색선과 그 위 가는 흰색선을 두르고 있다.

2) 무관복

무관복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장품에는 구장복과 갑옷이 주류를 이룬다. 구장복은 무관 최고 의 裝束으로 붉은 색 동달이 위에 남색 전복을 겸용으로 입는데 동달이는 오렌지색 길에 붉은 색 소매가 달린 옷이다. 그림 3은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된 동달이로 소장번호는 34. 1070이고 19세기의 것이다.³⁷⁾ 갑옷은 전투시에 착용하는 옷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 두서린갑주는 뉴와크 박물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뉴와크의 것이 옷감이나 가장자리 포피의 재질이나 옷에 장식된 금속 문양 등이 다른 박물관 소장품보다 우수하다. 그림 4는 뉴와크 박물관 소장품으로, E.H. Harriman이 1934년에 기증한 것이며 소장번호는 34. 229e이고 길이 108cm, 화장 63.5cm이며 19세기의 것이다.³⁸⁾



<그림 4> 갑옷, 뉴와크 박물관

빨간색 면펠트에 안은 구름무늬의 남색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5cm의 털로 트리밍을 두르고 있으며 겉에는 녹색 미늘, 특히 앞의 양쪽 아래부분에는 4 조용을, 뒷부분에는 호랑이 모형을 장식으로 달았다.

3) 흉 배

왕부터 관료들의 직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착용

36) Brooklyn Museum, Catalogy file of Brooklyn Museum

37) Brooklyn Museum, 상계서

38) Newark Museum, Donor file of Newar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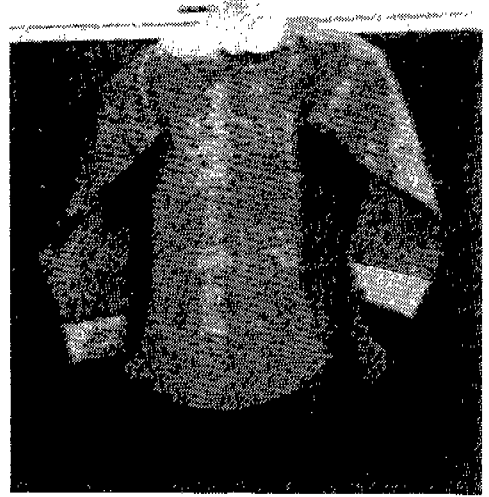
하던 것으로, 주로 관료들중 문관은 새모양을, 무관은 무서운 동물문양을 수를 놓아 가슴과 등에 가식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나, 현존하는 유물들은 무관의 호랑이와 문관의 학문양이 대부분이다. 텍스타일 박물관,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 브루클린 박물관, 뉴와크 박물관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형태이다. 그림 5는 뉴와크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소장번호는 39. 519이고 21cm×24cm의 크기이며 19세기의 것이다.³⁹⁾ 심청색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쌍학·블로초·구름·파도·산등의 문양으로 수놓아져 있다.



〈그림 5〉 문관의 홍배, 뉴와크 박물관

4) 당 의

당의는 조선시대 비·빈·상궁·사대부의 여자들이 입던 소례복중 하나로, 겹감으로 연두색 단이나 사를 사용하고 홍색 안을 대었으며 자주색 고름에 소매끝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았다. 브루클린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브루클린 것이 제작연대나 옷감의 재질면에서 우수하다. 그림 6은 브루클린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길이 65cm, 화장 60cm이며 19세기의 것이다.⁴⁰⁾ 연두색 사에 안은 홍색을 대었으며 3가닥의 사주색 고름과 거들지 및 단 봉황의 홍배를 달았는데 옷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소녀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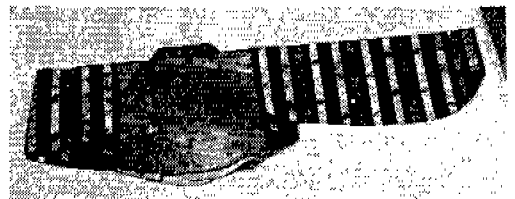


〈그림 6〉 당의의 뒷모습, 브루클린 박물관

나. 일상복식

1) 여자복식

치마와 저고리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대표적인 평상복으로 모든 계급의 여자들이 착용하나 신분이나 혼인여부, 나이등에 따라 각각 다른 재질이나 색을 사용하였다.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 뉴와크 박물관,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 필드 자연사 박물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비숍 박물관, F.I.T. 의상 콜렉션, 로버트 무어 콜렉션 등 거의 모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뉴와크 박물관의 치마·저고리는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이 제작했다고 해 흥미롭다.(그림 7) 그



〈그림 7〉 저고리의 뒷모습, 뉴와크 박물관

39) Newark Museum,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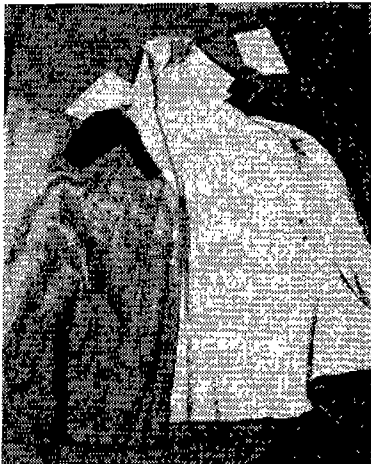
40) Brooklyn, 상계서

림 8은 로버트 무어 컬렉션의 것으로 누벼서 만들었으며 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상옷은 조선시대 여성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으로, 여름에는 사, 겨울에는 단으로 만들며 소매끝에는 거들지를 붙였다. 브루클린 박물관, 피바드 에센스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담배불로 인한 구멍이 나있다. 그림 9는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Mrs. Anne Frazar Hawkins가 1950년에 기증하였으며 소장번호는 CI 50. 88C이고 길이 138cm, 화장 81cm이며 19세기나 20세기 초의 것이다.⁴¹⁾ 초록색 비단에 흰색 안을 대었으며 깃과 고름은 자주색으로 만들어졌다.



〈그림 8〉 누벼저고리, 로버트 무어 컬렉션, 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그림 9〉 장옷,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

2) 남자복식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는 남자들의 평상복으로 브루클린 박물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필드 자연사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유사하나 브루클린의 것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아 아마도 외국인을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림 10은 필드 자연사 박물관 소장품으로 189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의 전시품이었으며 길이 63cm, 화장 76cm이고 자색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중요 민속문화재 제20호인 고종의 자색 누벼저고리와 유사하다.⁴²⁾



〈그림 10〉 남자저고리, 필드 자연사 박물관, 오명, “시카고 엑스포 참가 전시품 특별전”

다. 의례용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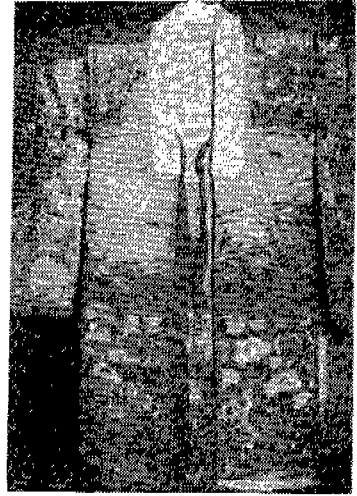
1) 혼례복식

혼례복식은 일상복을 제외한 신랑용 관복과 신부용 원삼이나 활옷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삼은 결혼식때 착용하는 것이고 활옷은 결혼식후 신랑집 조상들에게 인사드릴 때 착용했다. 원삼은 궁중에서는 왕비·공주가 입던 예복이며 일반 여인들의 혼례복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신분에 따라 색과 문양에 차이가 있다.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과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림 11은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레

41) Costume Institute in Metropolitan Museum of Art, Catalogue file of Costume Institute

42) 오명, 전게서, 1993

위손이 기증한 것인데 이는 한국인 무용가 사조기 (Sai, Shoki) 씨의 것이라고 하며 소장번호는 38. 97 1D이고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것이다. 연두색 사에 홍색·청색·노란색·분홍색·초록색·홍색의 색동 소매에 한삼이 달려 있다.⁴³⁾ 활옷은 조선시대 공주와 응주의 대례복이고 상류층 여인들의 혼례복으로 다홍색 바탕에 남색으로 안을 대고 소매에는 황색·홍색·남색의 색동과 한삼을 달았으며 지방이나 가문마다 차이는 있으나 옷 전체에 장수와 길복을 상징하는 문양을 수놓았다. 활옷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펠드 자연사 박물관, 비숍 박물관,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문양으로 수놓아져 있다. 그림 12는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의 것으로 소장번호는 E 20. 190a이고 길이는 96.5cm, 화장 101.6cm, 소매길이 58cm이며 19세기의 것인데, 빨간 비단에 청색 안을 대어 만들어져 있다.⁴⁴⁾



〈그림 12〉 활옷, 피바디 옛센스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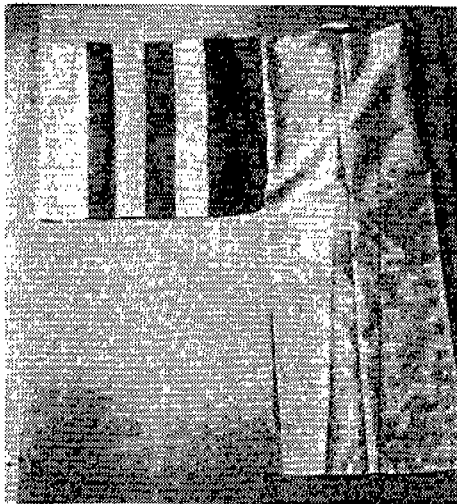
2) 상례복식

옛날부터 상례가 있을 때는 무명이나 베로 만든 상복을 만들어 입었으며, 상복은 브루클린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일상복으로 분류되어 있다.

V. 양국의 복식 관리현황의 문제점

복식은 당시 복식제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나 이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기후 및 지질등의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조금씩 보존처리과정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복식의 재료가 되는 면, 마, 견, 모피나 가죽은 썩기 쉬워 보존처리가 어려우며, 더우기 우리나라의 잦은 외부의 침입과 내란 등으로 말미암아 亡失, 燒失, 破損되어 왔다.

현존하는 복식은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의 출토 복식으로 이를 다량 소장한 박물관으로는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은양민속박물관등이다.



〈그림 11〉 원삼의 뒷모습,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

43) Costume Institute, 상계서

44) Peabody and Essex Museum, Catalogue file of Peabody and Essex Museum

1960년대 전반기부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으나 1960~70년대의 국토종합계획 및 정치·경제의 힘에 문화정책이 뒤로 밀리면서 문화재의 인위적인 파괴는 가속되었다. 그러나 복식면에서는 이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에 의한 선묘의 이장공사를 통해 많은 양의 출토복식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문화재의 발굴이나 지정등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할 뿐 과학적인 보존이나 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므로 더 많은 기술 개발과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⁴⁵⁾

이러한 우리 복식 관리의 문제점은 최근 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과 자금의 부족 및 일반대중의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다. 박성실씨의 논문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우리 복식유물 연구는 체계적이지 못하여 각 연구자마다 출토된 복식명을 다르게 하거나 묘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미비로 연대 추정치 일정치 않으며, 수의와 散衣, 男女복의 구분 또한 서로 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물사료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⁴⁶⁾

해외의 대부분 박물관에서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불과 수년전까지도 각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유물은 분류 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으며, 특히 미국 박물관내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는 대부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소장품보다 그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문화교류가 거의 없으므로 인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로 오류되는 등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살펴본 뉴욕 및 동부의 각 박물관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몇몇 박물관을 제외하

고 일반적으로 그 소장품들은 그리 가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대부분이 19세기에서 20세기의 것으로 골동품상이나 현지 답사시 구입한 물건 혹은 기증품들인데, 우리의 전통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 및 몇몇 박물관에는 복제품이 있기도 하나 미국인들은 복제품보다는 실물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또한 박물관에 따라 각각 소장품들은 Acid-free 상자내에 Acid-free 종이로 잘 포장되어 있거나 그냥 옷걸이에 걸친 채로 보관되어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내 우리 복식의 관리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행히 국내에서는 그나마 출토복식에 대한 연구가 학계와 정부기관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법에서는 더 많은 연구와 선진 해외박물관과의 활발한 정보교환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의 복식을 소개, 혹은 전시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들의 소장량과 관리현황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파악된 소장품조차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방치된 채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내 박물관에서는 그들의 복식 소장품단으로는 전시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다른 분야의 예술품과 같이 전시하거나 국내 유물의 해외 전시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해외유출 문화재나 국내 소장품에 대한 보존 및 관리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이 정립되지는 못했다. 미술사학자인 유홍빈 교수의 “문화재 행정이 도둑범이나 개발업자들의 ‘빠른 발’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문화재의 보존실태를 재검토하고 인식을 새롭게 할 때”⁴⁷⁾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병인양요(1886)때 약탈당했던 외규장각도서

45) 최덕향, “문화재의 보호와 대책에 대한 고찰”, 문화재 26, 1993, p.302~303

46) 박성실, 전계서, p.2~3

47) 신영수, “국내 문화재 훼손은 ‘강건너 불’인가”, 동아일보, 1993. 9.21, 14

의 반환요구에 대한 프랑스 문화인의 “문화재는 단순한 자국의 자산이라기 보다 인류 보편의 유물인 만큼 반환문제는 신중해야 한다”⁴⁸⁾라고 한 말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 위의 지적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무조건 반환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역나 기타 다른 안을 택해야 할 것인지, 그대로 해외에 둬으로써 인류 보편의 개념하에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부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VI. 결 론

1980년대를 전후로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남긴 우수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특히 해외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문화재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정부나 왕실에서 적극 보호하였으며, 그 중 복식은 민속자료중의 하나로 대부분 지배계층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출토복식이 주류를 이루며 이러한 복식들은 형태, 재질, 색상 등 그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2) 우리 문화재의 공식적인 해외전시는 189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부터 시작됐으며 20세기초부터 오늘날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우수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특별전시가 세계 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 횟수와 내용면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적은 편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보급해야만 한다. 또한 문화재는 대부분 외국인들의 약탈행위나 골동품상의 불법 혹은 합법적인 판매 및 기증 등의 방법으로 국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伊藤博文이 일본 天황과 귀족들에게 주는 선물로 우리의 문화재를 도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유물들이 도굴, 착취되었으며 이의 회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중 소량만이 반환되었다.

3)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공개, 전시함은 물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지닌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국보를 보관하는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고려사를 통해 추정되며 근대적 박물관의 호시는 강제로 폐위된 고종을 위르하고자 1909년 만든 李王家 박물관이었다.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로 각국이 상호교류와 공동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각국의 박물관들은 유물의 표본 수집시 1970년 유네스코협약(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1983년 5월에 이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4) 일찍부터 현지 공관을 통해 정부는 한국 문화재의 소장량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별 성과는 없었으며 최근 정부와 학계 및 여러 법인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의 약 15개국 이상에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환요청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20여개 박물관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보다 많은 곳에 더 많은 양의 문화재가 분류도 안된 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우리의 출토복식은 1970년과 1980년대 정부의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선묘의 이장공사를 통해 많은 양의 출토복식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48) 고미양, “고문서반환 유례없는 일”, 동아일보, 1993. 9.17, 29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어 중요민속자료나 보물로 지정된 후 각 박물관과 개인 또는 종중에 보관되고 있다. 미국내 몇몇 박물관이 우리 복식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뉴욕 및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에 35여점, 브루클린 박물관에 약 20여점, 뉴와크 박물관에 20여점, F.I.T. 의상 컬렉션에 10여점등의 복식이 보관되어 있다.

6) 우리나라와 미국내 우리 복식의 관리 현황을 정리해 보면 국내에서는 출토복식에 대한 연구가 학계와 정부기관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법 연구와 선진 해외박물관과의 활발한 정보교환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의 복식을 소개, 전시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들의 소장량과 관리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부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19세기에서 20세기의 것으로 골동품상을 통하거나 현지 답사시 구입한 물건 혹은 기증품들인데, 이들 박물관에서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문화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의 부족으로 거의 모든 미국내 박물관에서는 그들의 복식 소장품만으로는 전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리고 올바르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박물관들과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리작업이 이루어짐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에 의한 우리 우수 문화재의 반환요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더 많은 연구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장기적 연구의 일환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문화재의 연구, 특히 복식 문화재의 보존관리법과 현황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끝으로 학계는 물론 국민들의 문화재에 관한 관심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서 적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과학기술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I

김동욱, 고복남,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75호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심구당

동아출판사, 동아원색대백과사전

문화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1992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목록

손경자, 김영숙, 조선왕조 한국복식도감, 예경산업사, 1984

손경자, 전통한복양식, 교문사, 1990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6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3

한국국제문화협회, 미국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 한국국제문화협회, 1989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재 및

전통문화 관리기능 강화방안 연구, 1992

한국IBM, 한국전통생활의 미, 199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뉴와크 박물관 기증 및 수장 목록

동아일보, 1993. 9.13, 17, 21, 22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 수장 목록 및 전문연구

원 편지

브루클린 박물관 수장목록 및 전문연구원 편지

수도여자사범대학, 이조시대 궁중의복 의상 발표

회, 1964

한국일보, 1993.10.26

Korea Herald, 1992. 9.16

Korean Times, 1993. 9.23

오명, “시카고 엑스포 참가전시품 특별전”,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1993. 8

논문

김동욱, “임란 전·후기 출토복식”, 충북대 박물관, 1993

김종담, “박물관의 모집품 관리”, 문화재 25, 1992
“박물관학”, 문화재 23호, 1993

김종혁, “박물관 모집품의 보존”, 문화재 26, 1993

김영숙, “조선말기 궁중복식 조찰 : 동경박물관 소장 영친왕가의 복식 중심으로”, 문화재 17, 1984

김영심, “조선중기의 유의연구 -출토유의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석주선,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실태”, 한국복식 3호, 1983

_____, “일본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 소장 德惠翁주 유물 소고”, 한국복식 9호, 1991

안희균, “지류 섬유질 유물의 과학적 보존”, 고문화 22편, 1983. 5

이갑칠, “한국의 갑주(주로 해외소재 유물을 중심으로)”, 석주선박사 古稀기념 논총발간위원회, 1987

이명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보관 ‘영왕비 관련 유물’ 반환에 따른 인수 보고”, 문화재 25, 1992

이종철, “서구의 한국 문화재 전시와 구미 민속박물관 소고”, 문화재 13호, 1980

정재훈, “문화재 보존의 기본방향”, 문화재 17, 1984

정태진, “문화재보존 관리의 정책방향”, 문화재 22호, 1989

최옥자,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 : 이조시대 의상 중심으로”, 복식 1호

최종고, “문화국가와 문화재 보호 -비교법 및 국제법 적적 고찰”, 문화재 23호, 1990

현문, “문화재관리 행정의 기본방향”, 문화재 4호,

1971

Kim, Jin-goo, “Korean Costume : An Historical Analysis”, Ph. D. dis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77

Marisa Morra, “Korean Costum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aster Thesis 1985

Yun, Un-Jae, “A Survey of Korean Costume in Metropolitan Area Museum Collections and a Preliminary Study of Some Unexplored Aspects of Korean Costum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aster Thesis, 1994. 2

ABSTRACT

A Survey of Korean Costume Cultural Assets in Overseas
- Focusing on New York Area Museum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f Korean costume cultural assets in overseas museum collections.

Cultural Assets represent the cultural heritage. Also costume is one of cultural assets.

In 1980's,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surveyed Korean cultural assets. One of their findings was that Korean objects exists some countries. Unesco declared that cultural assets illegally taken a way to foreign countries should be returned to their nations. However, few objects had been returned to Korea.

Today museum professionals designing their exhibitions and collections try to both enlighten experts and instruct and please ama-

teur enthusiasts. Exhibitions are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of stimulating interest in cultural objects and ideas ; they reflect prevailing cultural, intellectual and political trends. The 1893 Chicago Exposition was the first international exhibition in which Korea has ever taken part. Overseas museum held many Asian exhibitions, however Korean exhibitions have been held much less frequently than those of most other Asian countries (China, and Japan)

Some of Korean art Collection have historical and artistic valuable, most overseas museums' collection are of low value and non-informative. Several museums in United States that have Korean costume ; some of these museums have highly valuable historical and contextual objects.

It is my hope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paper will be of use for thos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Korean culture.